

장성호 '10년 연속 3할타' 칠까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도전... 현재 타율 0.291

안타 5개 추가면 10년 연속 100안타 달성도

'스나이퍼' 장성호(30·KIA)의 한국프로야구 사상 첫 10년 연속 3할 타율과 역대 3번째 10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달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단 10년 연속 세자릿수 안타 기록은 이번 주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재 장성호는 지난 19일 광주 SK 와이번스전에서 안타 3개를 때려 시즌 안타수를 95개로 늘렸다.

장성호는 앞으로 5개만 더 추가하면 1998년 이후 10년 연속 100안타를 달성하게 된다.

삼성 양준혁(15년 연속·93~2007년)과 LG 마해영(10년 연속·95~2004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기록이다.

또 2루타를 3개 보탬 경우 역대 3번째로 2루타 300개도 채운다.

특히 장성호는 올 시즌 사상 첫 10년 연속 3할 타율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현재 타율은 0.291로 3할타율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전인미답의 10년 연속 3할타를 달성하기 위해선 타격감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장성호는 최근 5경기에서 타율 0.176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다만 지난 19일 SK전서 3안타를 때려내는 등 최근들어 타격감을 되찾고 있다는 게 다행이다.

장성호는 "욕심을 내면 될 일 안된다.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6년 프로에 입문한 장성호는 1998년부터 9시즌동안 통산 타율 0.317(4천 229타수 1천341안타), 연 평균안타 149개를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벨인퍼컴 볼링대회 김민휘 우승

광주일보사 후원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에서 김민휘(40)가 우승했다.

김민휘는 21일 광주시 북구 테넨볼링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 순위전에서 정종훈(39·광양시)을 누르고 우승, 훈련보조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날 우승자를 가리는 최종순위전에서 김민휘는 1·2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정종훈이 포키(4연속 스트라

이크)를 기록해 초반 기선을 쫓았다. 하지만 정종훈이 5·6프레임에서 연속 핀 커버를 하지 못하는 실수를 놓치지 않고 3~6프레임까지 '포키'를 기록하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2위를 기록한 정종훈은 훈련보조금 120만 원을 받았으며 3위 김정준(41·전주시)은 80만원의 훈련보조금을 받았다.

4위에는 김정배(44·전주시), 5위 염순자(여·41·광주시 북구)씨가 기록했으며 김경

덕(34·광주시 서구), 김용인(57·광주시 북구), 김영민(42·광양시), 김금철(34·광주시 동구), 오대훈(38·완주군 상판면)이 각각 6~10위를 기록했다.

이번 광주일보사 후원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 지역 예선을 펼쳐 이날 최종 순위전을 치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레인 컨디션 파악이 우승에 도움”

벨인퍼컴 볼링 우승 김민휘씨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너무 기쁩니다.”

광주일보사 후원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에서 우승한 김민휘(40·전주시)씨는 “예선때 레인 컨디션을 파악하게 우승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우승 비결을 밝혔다.

전국체전 전주대표 선수출신으로 전주에서는 알려진 실력파인 김씨는 구력 15년에 솜속 구질을 구사하는 전주 아마추어볼러 최강자.

이번대회 1위로 예선을 통과했을 때부터 이미 우승자로 기대를 모았었다. 15파운드의 볼을 사용하는 김씨는 전주인산 한성클럽 동호회 활동을 하며 볼러들의 꿈인 퍼펙트를 20회 기록한 기록의 사나이.

김씨는 “꾸준히 운동을 해 내년 제5회 대회에서도 우승, 대회 2연패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년에는 준우승에 도전할래요”

대회 흥일점으로 5위 염순자씨

“36강전에서 레인정비만 안했어도 3위는 할 수 있었는데”

광주일보사 후원 제4회 벨인퍼컴 사장배 남·여볼링대회 1~10위 최종순위전에서 유일한 흥일점으로 5위를 기록한 염순자(여·41·광주시 북구)씨는 5위가 못내 만족스럽지 못한 듯 아쉬움을 드러냈다.

10년 구력에 15파운드 볼을 사용하는 파워볼러인 염씨는 대회장인 광주테넨볼링장 동호회원으로 활동해 누구보다 레인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이점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평균 에버리지 220점 정도의 실력파인 염씨는 이번 대회를 위해 매일 점심무렵 테넨볼링장을 찾아 3~4게임하며 컨디션을 조절해 왔다.

염씨는 “올 대회에는 5위에 머물렀지만 내년에는 준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야구 우천리그 일정 확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1일 올 시즌 우천으로 연기된 프로야구 총 53경기에 대한 잔여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우천리그’는 9월4일부터 22일까지 진행

되며 시즌 최종일에 8개 팀이 모두 경기를 마치도록 편성했다.

9월4일 이후 비로 순연된 경기는 예비일에 열리고 예비일이 없으면 9월22일 이후 재편성된다.

팀 별로는 한화와 현대가 각각 16경기로 가장 많고, KIA가 10경기로 가장 적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테니스강 내달 17일 日서

사쿠라바와 K-1 데뷔전

한국계 격투기 선수 테니스 강(30·캐나다)이 내달 17일 일본에서 K-1 데뷔전을 치른다.

테니스 강의 국내 소속사인 ㈜엔트리안은 21일 “테니스 강이 그동안 활동했던 프라이드FC를 떠나 K-1 히어로즈로 이적이 확정됐다”면서 “9월17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K-1 대회에 출전, 사쿠라바 가즈시(38·일본)와 맞붙는다”고 밝혔다.

‘K-1 히어로즈’는 K-1의 세 가지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K-1 월드그랑프리(무제한급 입식타격), K-1 맥스(70Kg 이하 경량급 입식타격)와 달리 유일하게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는 종합격투기 대회다.

현재 유도 국가대표 출신 운동식(35)과 재일교포 추성훈(32·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 김태영(32) 등이 활동하고 있다.

테니스 강의 이적료는 2년 기간에 K-1 히어로즈 최고 파이터 수준의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엽, 팀 우승해도 MLB 안간다”

日 스포츠신문 보도

일본에서 활약중인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내년에도 메이저리그(MLB)에 도전하지 않고 일본에 머물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은 21일 이승엽이 올시즌 요미우리가 일본에서 우승하더라도 내년엔 메이저 리그 도전 여부를 팀과 재협상하기로 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승엽은 내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아직 시즌 중이다. (내년 거취는) 우승하고 나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해왔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올해는 팀에 별로 공헌을 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에 가려면 내가 팀을 이끌어 우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었다는 것.

이승엽은 지난해 타율 0.323, 홈런 4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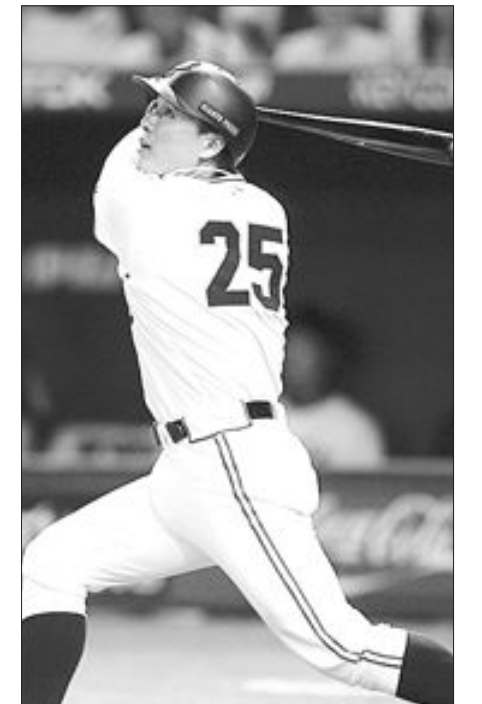
108 타점을 기록했고, 시즌이 끝난 뒤 메이저리그 진출을 고민하다 4년간 총액 30억 엔의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팀 우승 후 메이저리그 진출 재협상’이라는 변칙적인 내용의 계약을 했다.

하지만 올해 현재 이승엽의 성적은 타율 0.265, 홈런 20개, 52타점에 그치고 있다.

현재 기요타케 히데토시 요미우리 구단 대표도 “이승엽이 요미우리에 남아줬으면 좋겠다”며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호치는 이승엽이 주니치 3연전부터는 그동안 부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해온 고무 보호대를 벗고 경기에 임하는 등 필사의 각오로 클린업 타순 탈환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2일(수)

- ▲메이저리그<보스턴-텍사스>(08:00·Xports)
- ▲제4회 확산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회(14:00·KBSN Sports)
-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주니치>(17:50·SBS 스포츠)
- ▲프로야구<삼성-롯데>(18:00·MBC ESPN), <LG-현대>(18:00·KBSN Sports)
- ▲2008 베이징올림픽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19:45·MBC·Xports)
- 23일(목)
- ▲브라질 국가대표 월드컵유망주(브라질-알제리)<(01:20·SBS 스포츠)>
- ▲잉글랜드 국가대표 친선축구(잉글랜드-독일)<(03:30·MBC ESPN)>

모디쉬갤러리 夏 특가판매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디쉬 갤러리 특가 판매 상품입니다.

편안한 수면을 위한 모디쉬 갤러리 특가 판매 상품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디쉬 갤러리 특가 판매 상품입니다.

편안한 목욕을 위한 모디쉬 갤러리 특가 판매 상품입니다.

모디쉬갤러리 광주점 ☎062-383-3001-1 | ☎062-383-3001-2

다들 뭐 카페 검색 **마늘주사 후루민** 을 찾으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062-383-3001-1 ☎062-383-3001-2

☎062-383-3001-3

☎062-383-3001-4

☎062-383-3001-5

☎062-383-3001-6

☎062-383-3001-7